

포스코건설 공사현장 재생 안전망 사용 '위험'

광양 에너지 신축 공장 참여작업자 "재생망 설치" 밝혀

구매계약서엔 '신제품 납품'...담합의혹 속 추락 등 재해 우려

포스코건설이 광양에 에너지 관련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생 안전망을 사용해 작업 시 추락 등 재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초에는 안전망을 신제품으로 구매하고 납품했는데도 공사 현장에선 일부 재생 안전망이 사용돼 납품과정에서의 담합 의혹도 일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광양시 금호동 동호

안에 그룹의 에너지 관련 회사인 SNG(합성천연가스) 공장을 신축중이다.

SNG는 저급분말을 고온·고압에서 가스와 해 액화천연가스와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청정연료화 사업으로, 포스코건설은 6만7311㎡(건축 연면적)에 사무실과 공장 등 22개 동을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축 공사 현장에 참여한

한 작업자는 16일 "재생 안전망을 우선 및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며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돼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포스코건설 구매부서는 신제품만 계약, 재생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았고 이 현장에 안전망을 납품한 C업체 관계자도 올해 2000여만원 정도의 신제품 안전망 밖에 납품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시공 현장과 안전망 설치업체 간 담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불매 전체 물량의 30% 가량이 재생 안전망으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공사 현장 관계자는 뒤늦게 상황과 후 여수고용노동청에 재생용 안전망 사용 규정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수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안전망 강도기준은 있으나 재생용 사용을 민원 제기 전 점검이나 제재가 불가해서 시공사가 품질위반은 사전 검증해야 된다"면서 "문제발생 시 샘플을 수거해 안전공단에 강도시험을 거쳐 기준에 미달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귀농·귀촌인 물리는 곡성

'도시민정착지원센터' 운영 효과 올해 112가구 이주

곡성군이 자리를 잡는 도시민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4년 전 도시민정착지원센터를 열고, 귀농·귀촌을 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16일 곡성군 도시민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을 상담해 온 268명 가운데 65가구가 최종 이주했으며, 이날 현재 상담 277건에, 최종 이주가가구는 112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죽곡면 강빛마을 전원주택단지에서 지난해 말부터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이주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특히 귀농·귀촌을 바라는 도시민들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

고, 농가주택 구입비, 창업 자금 등에 대해서 국비 용자지원도 앞선해주고 있다. 또 초기 귀농가구의 성공 정착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 성공 농가와 초기 귀농가구 간 후견인 제도, 정착 터전 기반 조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농한 도시민을 돕고 있다.

곡성군이 광주·순천·여수 등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자리하고 있는데다, 자연여건이 뛰어나고 지가가 낮은 것도 도시민 이주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지원센터 박창열 사무장은 "귀농이나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을 돕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상담부터 이주 결정, 이후 후정착 과정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곡성군 도시민지원센터로 인해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여수 불빛축제 '빛노리아' 환상적

'가볼만한 겨울축제' 선정

'2013 여수 빛노리아(Bitnoriya in Yeosu 2013)'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볼만한 한겨울 축제'로 선정됐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2013 여수 빛노리아'를 포함해 올겨울 가볼 만한 전국 각지의 겨울축제 20곳을 선정했다.

'2013 여수 빛노리아'는 오는 20일부터 75일 동안 매일 오후 5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일루미네이션(LED에 의한 불빛 장식)을 접하며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축제다. 소망의 빛 터널, 해바라기 공원, 각종 사진찍기 장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소망카드 달기, 종이배 띄우기 등 체험과 공원호수에 펼쳐지는 빛의 거북선은 이색적인 볼거리로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기억과 여수의 멋을 느낄 기회를 선사한다.

여수시는 오는 20일 오후 5시 30분 거북선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 4일까지 화려한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일 수출 해남 백합 수확 한창

해남군 삼산면 정주현(57)씨 부부가 16일 자신의 시설하우스에서 지난 9월에 심은 오리엔탈 계통의 백합 수확에 여념이 없다. 해남 백합은 내년 1월까지 수확해 대부분 일본에 수출된다./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나주지역 취업률 가파른 상승세

직후생 494명 기업 입사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어

나주지역 취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직업 훈련을 통해 배출된 젊은 인력들은 기업에, 노인이나 부녀자 등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취업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개원한 직업훈련원생 586명 중 494명이 취업해 3년여동안 평균 80%를 웃도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교육수료인원 229명 가운데 207명(취업률 90.3%), 지난해에는 수료인원 205명 가운데 172명(83.9%)에 이어 올해에는 152명 가운데 115명(75.6%)이 일자리를 얻는데 성공했다.

2013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과에서도 나주는 67.6%의 고용률로 전국 시·군·구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또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공시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최우수 등급인 2년 연속 'A등급', 일자리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각종 일자리 창출분야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시는 내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3년 희망나주 일자리포럼'을 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공공체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순천남산초 야구장 증축공사 마무리

야구부 생활관도 완공

순천남산초등학교의 숙원인 야구부 생활관과 야구장이 완공됐다.

순천남산초는 지난 10일 야구부 생활관 개관과 함께 최신 설비를 갖춘 야구장을 증축하는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순천시, 전남야구협회 관계자, 야구부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야구부 생활관은 전남도교육청에서 1억4000만원, 순천시로부터 2200만원을 지원받아 신속하게 됐고 증축된 야구장에는 실내연습장까지 갖추

고 있다.

지연호 순천남산초 교장은 "도움을 주신 관계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해 더욱 좋은 성적으로 순천의 명에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에 창단한 순천남산초 야구부는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3년 연속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했으며 2013년 전남야구협회장기에서 우승하는 등 전남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연말 훈훈한 봉사 2편

섬마을 주민 무료 의료검진·떡국 접대 초·중생 재롱잔치...어르신들 함박웃음

■ 여수 명진하미음봉사회

여수지역 봉사단체인 명진하미음봉사회(회장 박기주)가 지난 15일 섬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사진> 의료진과 봉사회 회원 150여명으로 구성된 명진하미음봉사회는 이날 여수시 남면 화대도 출장소를 찾아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미음 봉사를 실시하고 손수 끓인 떡국을 제공했다. 부산지역 내과 전문의 윤종경 윤내과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여수 사랑병원 박기주 원장과 내과·가정의학과·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참여해 주민들에게 종합검진 수준의 의료 봉사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00

여명의 회원들은 주민들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고 떡국 대접으로 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는 박수관 YC Tech 회장이 고향 섬주민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후원해 마련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남면 우하리 의료봉사활동에서 주민 22명에게 사비를 털어 추가 정밀 검사와 치료를 하도록 했으며, 이날 진료한 주민 300여명에게도 추가 진료 및 지원을 약속했다.

명진봉사회는 여수시 남면 출신으로 부산·베트남 등지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성공한 출향 기업가 박수관 회장의 '법명'을 딴 것으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해 설립돼 현재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담양 청죽골효자동아리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인식)은 16일 "지난 12일 '청죽골 효자동아리' 소속 초·중 학생 76명, 교사 13명 등이 담양읍 '예수마을 의집'을 찾아 입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효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월산초교 김은진 의 4명이 준비한 춤 공연을 시작으로, 이들 학생들은 난타, 바이올린, 오카리나, 피아노, 통가타, 플루트 연주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노인들을 기쁘게 했다.<사진>

김영선(여·82) 할머니는 이날 학생들을 지켜보며 "손자 같은 학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추운 날씨에 잊

지 않고 찾아줘 너무나 고맙고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많은 축복을 기원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함께한 박인식 교육장은 "자주 찾아야 도리지만 그나마 건강하고 편안한 모습을 뵈게 돼 감사하다"며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한 달 넘게 모여 준비한 것으로, 오늘 하루만은 걱정 없이 아이들의 재능을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올 한해 '효' 실천 교육을 강조, '청죽골 효자동아리' 봉사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노인들을 위한 위문공연, 독거노인 결연 및 목욕봉사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숙박시설 고객 유치·학술교류 협약 체결

전남관광-한국관광산업포럼

전남관광(주)은 16일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포럼인 '한국관광산업포럼'과 숙박시설 고객 유치와 학술교류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경호동 소재 여수 경도 리조트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송영진 전남관광(주) 사장, 한국관광산업포럼 윤대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관광(주)은 숙박시설 영업활성화, 경영 컨설팅 및 위탁교육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됐으며, 한국관광산업포럼 측에서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증대 및 숙박시설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전남관광(주)은 여수 경도 리조트, 한옥호텔 오동재 영산재, 해남평화호텔, 남악골프연습장 울돌목, 거북선 등을 운영 중이다.

/정월수기자 bungy@kwangju.co.kr